

# 지역 먹거리 발굴...혁신도시 우수사업 키운다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화 6개 사업 중 나주 2개 선정 전력기자재 지능화센터 구축·디지털 그리드 기기개발 실증사업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 2건이 정부 공모에 선정됐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들 사업은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둔 한전전공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2018~2022년) 중 우수사업 6건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 등 과제를 담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광주·전남 2건, 경북·충북·제주·전북 각 1건 등 총 6건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와 공모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들 사업안을 최종 선정하고

각 안건마다 사업 기획비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접수된 11개 사업안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은 2건이 선정됐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원받은 기획비를 활용해 세부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안들은 내년에 있을 다양한 정부 공모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 기획비를 지원받은 '광주·전남 에너지융복합단지' 구축안은 정부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기획비를 지원받은 광주·전남 종합발전계획은 '차세대 전력기자재 지능화 지원센터 구축'과 '디지털 그리드 핵심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이다.

'전력기자재 지능화센터'는 나주 혁신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 에너지전용 산업단지에서 구축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 ■ 혁신도시 발전계획 우수안건 개요

사업기간	전력기자재 지능화센터	디지털 그리드 기기개발
사업비	250억원(국비 175·지방비 50억·민자 25억)	150억원(국비 105억, 지방·민자 45억)
내용	중소기업 지능형 전력기자재 연구개발·시험·성능평가 지원	차세대 전력망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

※추후 변경 가능

〈자료:전남도〉

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화 전력기자재의 시험·평가·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 측은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하고 혁신도시 지역 자원의 활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국비 175억원·지방비 50억원·민간자본 25억원 등 총 250억원으로 오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공모에 선정된 전남도는 이번 사업 기획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융복합단지 기반 구축'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 공모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또 다른 선정 사업은 '디지털 그리드 핵

심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으로,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등 전남지역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가 적극 활용된다. 여기에 나주 동신대 스마트그리드 캠퍼스 사업에 동참해 산학협력을 펼친다.

'디지털 그리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꼽힌다. 신재생 에너지의 계통용량 문제를 계통의 신규 확충 없이 기존 계통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해소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다.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담당자는 "이번에 지원받은 기획비를 활용해 정부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서를 보완, 내년 정부 공모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전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 오픈

### 전력거래소 '모이세' 등 공공기관들 잇따라 개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광주·전남 사회적경제기업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위한 플랫폼(온라인 쇼핑몰)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9일 광주·전남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플랫폼인 '모이세'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광주·전남 지역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물품·서비스 5만여 종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전력거래소를 포함한 이전기관 14곳과 광주·전남도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온라인 쇼핑몰을 공사별로 개설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

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4개 기관들은 지난달부터 사회적경제 구매 플랫폼을 잇따라 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 플랫폼을 분사와 지사 구매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온라인 특별전'과 연계해 사내 홍보를 벌이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기관과 업무협약 ▲분기별 사회적경제 장터 개최 ▲사회적경제기업 수시 판로지원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한지연 재무경영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책임감 있는 공공구매를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힘쓰는 전력거래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운영대의원 14명 위촉

정임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 연합회장 등 14명이 한국농어촌공사 9기 중앙운영대의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23일 나주 본사에서 '제50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열고 신임 중앙운영대의원 14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대의원들은 공사와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토론도 벌였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김인식 공사 사장을 의장으로, 이상엽 부의장(공사 수자원관리이사) 등 사내 2명과 대외 의원 14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9기 중앙운영대의원은 연임 없이 모두 신임 대의원으로 교체됐다.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대의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공사는 올해 9기 중앙운영대의원은 농업인의 대표성을 강화, 각 지역 현안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대의원에는 정임수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 연합회장(전남),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경기), 김인원 한국생활

개선연합회장(강원), 전장재 전 한국농업경영인 전북도 연합회장,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장(전북), 원종성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경기),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

회장(경북), 홍의식 한국쌀전업농 문경시연합회장(경북), 박지환 한국농촌지도자 충북도 연합회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장(충남), 안장현 충남도의원, 양재명 한국농업경영인 의령군 연합

회장(경남), 박삼준 전남해군의원, 현진성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 연합회장 등이

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전KDN, 사회적경제기업 사학연금,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사업 추진

### 판매·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한전KDN이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시설을 개선하고 온라인 홍보를 돕기로 했다.

23일 한전KDN은 이날 초 광주광역시 활동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생산품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전KDN은 자활기업의 제품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열악한 판매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주파니브라운)과 협력해 위치정보(GPS) 기반 모바일 앱으로 '일자리 매칭(연계)'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전KDN은 ▲자활생산품 홍보영상 제작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취약계층 일자리 매칭프로젝트 운영에 쓰일 지원금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 기탁할 예정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이 보유한 ICT역량을 활용해 자활과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반 제공과 사회적경제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전KDN은 사회적대응행과 공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을 위한 경영자금 무이자 대부 및 무상지원 사업인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및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시행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이사장 주명현·가운데)이 최근 나주 본사에서 지역인재양성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학연금 제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

사업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한다.

사학연금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지역인재양성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사학연금은 지역아동 4명

에 3년 동안 총 436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학업·예술·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능력 발휘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학연금은 지역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사공동장학금을 만들어 저소득 가정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단

의 기금운용 역량을 활용한 금융·경제 교육 기부로 지역 금융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주명현 이사장은 "공단의 이번 장학지원을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재능을 지역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 집중과정 수강생 모집

### 80명 다음달 12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취업까지 연계되는 온라인광고 집중과정 수강생 80명을 7월12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7월21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생은 현직 실무 전문가가 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온라인광고 산업 전반적인 이해부터 기획 및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분야별 집행 ▲광고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및 상업(커머스) 광고 교육이 추가됐다.

이런 교육에는 채용 수요를 지닌 온라인광고 기업 30여 곳이 참여한다. 이 과정은 총 539명이 수료했으며, 그중 277명(51.4%)이 관련 기업에 채용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